안녕하세요,
지난 주까지 야고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유투브 강의를 시청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올린 강의록을 하나로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책 표지를 넣어주세요).
잠깐 한국을 방문한 제 아들이 강의록을 정리하고 오타를 고쳐서 책 형태로 만들었고, 표지 그림은 화가로 활동중인 제 아내가 그렸습니다.
출판을 하고자 계획하였으나, pdf형태의 무료 e-book으로 배포하는 것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성경과 문화 연구원 홈페이지(www.antiochrc.org)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Naver에서 "성경과 문화연구원"을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년정도 무료로 공개하였다가, 정식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물론 무료 공개기간 중에 pdf를 내려받으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pdf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 첨부된 pdf 책을 읽어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이 홈페이지를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pdf를 보내시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과 문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도록 해주시면, 저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1

이번 주부터는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한다.
제 친구 중의 하나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다. 규모가 아주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이 있었다. 그는 고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범조인 중심의 소그룹에 참석하여 그 그룹의 간사의 직분을 맡고 있었다. 멤버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 된다. 그런데 한번은 모임 중에 그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당황하여 제대로 기도를 못 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아예 기도 생활 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많이 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로 기도는 하지만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전혀 기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신중하게 참다운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으로 기도를 드린 사람도 많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엔드류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기도를 가르쳤다." 제자들 역시 기도를 배우기에 힘썼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게 되어 기도에 대해서 몇 강의를 해보고자 한다. 오늘 첫 강의로
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

누가복음 11:1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처음에는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하지만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도를 배우지 않고도 잘한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악보도 볼 줄 모르지만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사람을 보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예외이고 대부분 배우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계사를 움직인 위대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위대한 영향력을 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배우기 위해 힘쓴 사람들인가를 잘 모른다.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하고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잘 모른다. 영어를 가르쳐 주고 컴퓨터를 가르쳐 준 사람은 차고 넘치지만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를 잘 배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은 없다. 기도를 잘 배울 때 자연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하늘 문을 활짝 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세계정세가 암담하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기도를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를 배우면 기도가 유일한 해결 책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을 때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Ⅰ 최고의 기도의 선생님, 예수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 주셨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이론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보여 주심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의 삶이 기도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성경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보자. 밤늦게까지 일하시고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마가복음 1:35).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6:12-13). 기적을 행하시거나 큰 역사를 이룬 후에는 반드시 기도처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5병2어의 기적을 행하신후 홀로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다(요한복음 6:15). 기적을 행하고자 할 때도 기도했다. 나사로를 죽은지 나흘이 되었는데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요한복음 11:41-42).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 의지 자기 원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다. 누가복음 22: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의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였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고(히브리서 5:7),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누가복음 22:44).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요한복음 17:1-5), 제자들을 위한기도(요한복음 17:6-19)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요한복음 17:20)을 위한 기도였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복음 11:41-42)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상에서 좋은 기도의 선생은 좋은 모범을 보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찾아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스승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의 스승을 찾아서 그들에게 기도를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의 선생으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 해야할 것이다.

Ⅱ, 기도를 가장 잘 배운 사도들.

사도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기도를 배웠다. 그들은 말없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도 배웠고 때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의 특징은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한 소년을 치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쫒아 내 주셨다. 그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겸손히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쫒아 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다. 이처럼 끊임 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다.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배우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 3:13-14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스스로 나왔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우겠다는 자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도를 배우는 데있어서도 가장 중요 한 자세는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정말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저절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한다. 사도들도 기도를 배우고자 애썼고,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자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배워야 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잘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상상할 수

없도록 큰 것이다. 그 유익은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것이다. 특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목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자 하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없이 여기 저기서 정보를 모아 설교하는 것은 다 쓰레기와 같다. 그런 쓰레기를 먹고 양들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양들이 다 도망을 간다. 참 양식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일처럼 복된 일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겠다고 결심을 했다(사도행전 6:4). 기도를 배우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매주 월요일 1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줌으로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과 성령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둘째, 성경 속에서 기도의 인물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
모세, 아브라함, 한나, 사무엘 다윗,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고,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셋째, 가까이에 있는 부모, 신앙 선배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
넷째, 기도에 관한 책을 통해서도 기도를 배울 수 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교과서는 성경이지만 기도에 성공한 자의 책도 기도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오할레스비가 쓴 “기도”라는 책과 앤드류 머리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은 나에게 기도를 배우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다. 앤드류 머리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죠지 뮬러의 기도의 모범을 소개하고 있다. 이론보다 모범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글라스 켈리가 쓴 기도의 책 “If God already knows, Why Pray”라는 책도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아쉽다. 나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 생활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책은 나에게 좋은 기도의 스승이 되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면 기도가 쉽고,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 시간이 즐거워 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실제적인 내용을 이 설교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기본기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